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비지터센터의 펠릿 난로

우라반다이의 겨울은 영하 기온과 평균 3m의 눈이 쌓이는 산의 적설량으로 유명합니다. 우라반다이 비지터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원을 원료로 하는 압축 우드 칩을 연소시키는 친환경적인 펠릿 난로를 사용하여 추운 계절에 시설을 난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우드 칩은 3개의 지속 가능한 자원을 원료로 삼습니다. 즉 간벌(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라도록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 내는 것)을 위해 벌목한 나무들, 벌목하지 않은 나무에서 가지치기한 가지, 목재를 만들면서 나온 톱밥입니다. 삼림 구역을 간벌하면 남은 나무들이 최대한 성장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한 가지를 가지치기하면 그 나무의 구조적인 건전성이 높아져 건강하고 새로운 성장이 촉진됩니다.

나무 부스러기를 기계로 가공하고 건조해 압축하면 난로의 자연 연료인 펠릿이 만들어집니다. 펠릿에 폐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우수한 연료가 됩니다.